

# 성금 속속 답지...광주의 미얀마 연대 뜨겁다

광주 초·중·고 3형제 저금통 기부 등 학생·시민·공직자 등 1231건 한달 만에 1억3000만여원 모아 최초 모금 목표액 1800만원 초과 목표액 5억1800만원으로 상향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원에 사용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했다. 민주화운동을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의 용기와 의지를 응원하는 시민들은 한달 만에 1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다. 40년 전인 1980년 5월, 자기 집 쌀을 가져와 길가에 술을 걸고 시민군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어 건네준 시민들의 연대의 정신이 미얀마인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이하 광주연대)에 따르면 미얀마 민주

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난 달 11일 이후 한 달만인 이날 현재까지 1억 30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1231건의 모금 내역 중 대부분인 1100여건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시민들로, 모금 계좌에 기부자 이름 대신, '미얀마 지지', '함께하겠습니다', '미얀마 힘내세요' 등을 써 보냈다는 게 광주연대측 설명이다. 광주연대 관계자는 "군부의 유혈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1980년 당시 광주에 대한 국가 폭력을 떠올린 지역민들이 미얀마 시민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성금과 후원금 모금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1980년 당시 광주의 투쟁은 외로웠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연대하며 응원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연대-응원 움직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서구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 김희준(13)·명준(10)·예준(7)군은 지난 5일 할머니와 모은 72만 4080원을 화정 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

달했다. 예준군은 "TV로 미얀마 소식을 보다가 '예전 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면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저금통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일동초교 학생들은 이달 둘째 주(5-9일)를 '미얀마 돕기' 주간으로 정하고 미얀마 지원 성금을 모금했고 일곡청소년문화회집도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으로 13만원을 모아 광주연대측에 내놓았다. 시민단체들도 힘을 모았다. 광주흥사단은 1주일 간 639만원을 미얀마 광주연대에 전달했고 유기동물을 지원하는 동물단체는 연대의 의미가 담긴 티셔츠, 예코백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 14만원을 보냈다. 공직자들도 모금에 참여 ▲서구청 직원 ▲서구의회 ▲서광회 ▲서구지역 18개 동 자생단체 ▲서구마을네트워크 '이락' 등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는 서구 시민·기관·단체·직원들이 5·18을 기념하는 뜻에서 518만원씩 260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광주 시민들의 응원 모금 열기로 목표액을 잇따라 상회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연대는 애초 지난 2021년 2월 22일 미얀마 전역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며 벌어진 시위인 '22222 시위'를 기념하자는 의미로 '22222000Kyat' (ჷ-미얀마화폐-약 1800만원 상당)로 정했다가 순식간에 모금액이 모이자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목표액도 넘어서면서 현재 목표액은 5억 1800만원으로 정해진 상태다. 광주연대측은 미얀마 민주화투쟁 지원, 부상자 치료 지원, 미얀마 공동체 투쟁 지원 등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원에 모금액을 사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은 오는 14일 광주연대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기봉 미얀마광주연대 집행위원장은 "광주시민들이 미얀마에서 41년 전 광주를 돌이켜 보고 있다"면서 "광주가 미얀마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민주화운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국제적인 지원 조직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고객 예금·은행 돈 3억 빼돌려 주식 투자 '간 큰' 은행직원 징역형

고객 예금·은행 돈 3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쓴 '간 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산구 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 은행 돈 1500만원을 임의로 빼내 주식 투자에 쓴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까지 26회에 걸쳐 은행돈이나 고객 예금 등 2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식투자로 횡령한 돈을 채워넣기 위해 후속 범행을 벌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3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금액을 모두 갚아 은행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3009함 선상추모식 지원 논란 해경 "세월호 유족에 깊이 사죄"

해경이 세월호 참사 해역 선상추모식 취소 (광주일보 4월 12일 6면)와 관련, 공식 사과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었던 3009함을 선상 추모식에 지원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양경찰은 지난해 4월 제 6주기 선상 추모식에 3000 t급 함정을 2차례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 11일 예정된 선상 추모식 행사와 관련, 목표해경 소속 3000 t급 함정을 지원하고자 했다"며 "목포해경이 보유한 3000 t급 함정 2척 중 3015함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현안 경비활동 등으로 3009함을 지원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해경은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었던 3009함을 추모식에 지원하려다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16일로 예정된 2차 선상 추모식에는 3015함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진으로 보는 중국 빈곤 퇴치 성과 12일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에서 '중국 빈곤 퇴치 성과 사진전'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전두환 집 본채·정원 몰수 위법 대법원 판결... 별채 몰수는 정당

추징금 집행에 위해 전두환씨의 연회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회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회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씨의 연회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엔 연회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별채는 전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 외벽 작업 중 추락사 올들어만 5명 고용노동부 긴급 현장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작업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지난 9일 나주지역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지난달 이후 외벽

도장·보수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5건의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

한 데 따라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작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패트를 현장점검, 감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기로 했다. 고층 건물외벽 작업시 밧줄로 매단 그네인 '달비계' 작업 현장은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대부분 소규모 현장으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없거나 관련한 안전교육도 부족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이달 셋째주부터 3주간 '달비계'를 사용하는 건물 외벽 작업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과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외벽작업 현장의 경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달비계' 사용현장을 파악한 뒤 ▲수직 구명줄 설치 ▲작업용 로프결속 및 고정부 상태 확인 ▲로프 파손 및 접속부 마모가능성 확인 등 '달비계' 작업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집중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